

ADHD 학생 치유·회복 돕는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전북자치도교육청, 1인당 최대 300만원 치료비 지원... 가정통신문·교육자료도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ADHD 학생에 대한 조기 치료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심리·정서적 회복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단위가 아닌 ADHD 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모든 학생을 대

으로 진단·상담·치료까지 지원한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학생 320명, 중학생 52명 총 372명이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다. 4월 선정심사를 통해 중복 지원 등의 사유로 미선정된 학생을 제외하고 초등학생 305명, 중학생 50명 등 총 355명 학생의 ADHD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원이다. 학생에게는 병의원 이용시

단비, 상담 및 치료비, 심리검사비, 미술치료, 놀이치료, 치유를 위한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에게는 ADHD 자녀 양육을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

다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2개월 동안 병·의원 및 상담기관 등에서 ADHD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ADHD에 대한 가정통신문 및 교육자료를 통해 과잉행동으로 인한 학교폭력의 위험성, 학교

생활의 어려움 등을 안내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ADHD 학생들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ADHD 자녀 이해하기 워크북' 부모용과 교사 안내용(치료자용) 2종을 제작해 5월 중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정은 "ADHD는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ADHD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직원수련원, 반려해변

환경정화·청렴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23일 부안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제1회 반려해변 환경정화 활동 및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반려해변 해양환경 정화활동은 교직원수련원 직원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날 국립공원 변산반도 노을공원부터 변산해수욕장을 거쳐 송포항까지 이동하면서 버려진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태계보존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섰다.

올해는 청렴캠페인을 병행해 직원은 '더 청렴한 전북교육' 실천을 다짐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홍보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최원창 원장은 "청렴 캠페인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꾸고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 다양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미래교육연구원에서 '2024 교류협력국 교원 초청 디지털 교육 연수'를 진행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필리핀 카비테주 교원들에 디지털 교육 노하우 전수

전북자치도교육청, 29일까지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9일까지 미래교육연구원에서 '2024 교류협력국 교원 초청 디지털 교육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카비테주 교원 20명을 초청해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개발도상국에 디지털 교육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함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05년 필리핀 카비테주와 양해각서를 체결, 교원의 디지털교육과 각종 인프라 지원 등 교육

정보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프로그래밍 △웹스터 활용 코딩 △로보마스터 △피지컬 컴퓨팅 등의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필리핀 교원의 선호 주제를 사전에 파악해 반영했고, AI 교육 중점 학교 등 기관 방문을 통한 체험 연수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한편 이 연수에는 지난해까지 필리핀 교원 395명이 연수에 참여했으며, 전북교육청은 필리핀의 인프라 구축

을 돕기 위해 PC 2162대를 포함한 각종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했다.

마리아 세실리아 곤자가(MA. Cecilia Gonzaga) 연수단장은 "소중한 교육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라며 "20년 동안 유지한 전북교육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을 방문한 카비테주 교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전북교육청만의 특색있는 디지털교육 모델을 발굴해 상호 교류활동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직업계고 SOC 선정 도내 학교 2곳

교육부 공모... 'III 유형' 완산여고·영선고 선정
지역상생, 학습·정서케어로 학교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직업계고 SOC사업에 III유형으로 완산여자고등학교와 영선고등학교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직업계고 SOC 사업은 산학협력(Start-up), 지역상생(Outreach), 학습 및 정서케어(Care) 등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III유형(Care)은 외부 기관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진로설계 지원, 심리 상담 등 심리치유 및 학업 동기 유발을 통해 위기 학생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형태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개교를 선정하는데, 도내에서는 2개교가 선정됐다.

먼저 완산여고는 또래친구&교사&학부모 학교 적응 프로그램, 위기 탈출 동아리 프로젝트, 체험활동 및 지원금 UP 프로그램, 진로설계&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 및 정서케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영선고는 고창지역 WEE센터 및 병원형 WEE센터 운영,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활동 등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내세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직업계고 SOC 사업에 도내에서 2개교가 선정,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 정서 관리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설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중간시험을 맞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천원의 저녁밥'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천원의 저녁밥' 사업 운영

총 2960만원 투입... 중간·기말시험 기간동안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중간시험을 맞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천원의 저녁밥'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저녁밥은 중간시험 기간인 22일부터 30일까지, 기말시험 기간인 6월 5일부터 19일까지 각각 제공한다. 2학기에도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2,960만원을 지원해 하루 200명의 학생에게 천원의 저녁밥을 제공한다. 천원의 아침밥과 동일하게 1식 금액 5,000원을 기준으로 대학에서 4,000원을 지원하고, 학생은 1,000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장은성 기자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학생관 식당에서 운영되며, 식권은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앱(이츠미 어플)과 키오스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양오봉 총장은 "지난해 간식 나눔 사업과 올해 확대 운영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이어 학생들이 시험기간 내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천원의 저녁밥을 처음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피부로 채갈 수 있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학생이 만족하는 대학이라는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스마트헬스케어

VR 직무체험 교육 '호음'

전주비전대학교 산학관 커플링사업단(단장 김재현)은 지난 19일 스마트헬스케어 VR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은 VR 콘텐츠를 활용해 가상으로 환자간호를 직접 수행하며 간호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과 같은 현장감과 몰입감으로 간호직무를 체험하며 학생들이 큰 호응을 보였다.

VR 직무체험에 외부강사로 참여한 서수진 교수(호원대학교 간호학과)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점이 많은 상황이고 학생들은 미숙한 수행 능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론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로 실제 상황에 적용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VR 시뮬레이션 실습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험에 참가한 임송희 학생은 "현실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환경에서 환자와 상호작용하며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 체험의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현 단장은 "VR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임상 상황 판단력과 위기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반복 교육을 통해 정확한 간호 및 처치를 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나아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7월까지 부패 취약분야 집중점검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등 3개 분야 대상 특정감사 나서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부조리 현황 등 접수 감사에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7월까지 학교운동부, 테마시 현장체험학습(수화여행), 방과후학교 운영 등 3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해당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또 학교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학교운동부 운영 특정감사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종목인 야구

부와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12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생 선수 관리의 적정성 △운영 경비 집행의 투명성 △운동부 지도자 채용·관리의 적정성 △항응·금품제공 등 부적절한 사례 여부 등이다.

이와 테마시 현장체험학습(수화여행) 분야는 24개교를 대상으로 △현장 학습 계획 수립 및 △현장 답사 △계약 방법 △자체평가 절차의 적정성 △관련 업체로부터 교통, 숙박 등 제공 받은 사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장은성 기자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경우에는 24개교를 대상으로 △강사모집 및 △선정 방법 △위탁 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4~6월 부패 취약분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분야의 부조리 현황이나 제안 및 건의 사항을 접수해 이번 감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엔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부당한 사실은 엄중 처분하고, 부패 취약분야의 분석·개선으로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사회 공동체 책임 갖는다

전주비전대 기차기상담센터,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협약

전주비전대학 기차기상담센터(센터장 고경자)는 23일 파바로소 회의실에서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소장 이혜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심리 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접수(수사기관, 의료지원, 쉼터 등)와 수사·법률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성폭력을 전문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사회 공동체 책임을 가져 지역사회를 견인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과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진료·심리 지원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상담 서비스 지원 및 교육 △그외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운영 등이 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혜진 센터장은 "성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등 지역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경자 센터장은 "본교 재학생들이 이론과 현장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글로벌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전문 능력 강화 및 현장 중심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오준영 회장은 "이번 협약이 현장 선생님들의 사기 증진에 도움이 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생님들의 지역상생 이동을 통해 도내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규용 행정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려병원이 전북 지역 선생님들의 건강관리를 더불어 전북교육에도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전주고려병원도 환자들을 위한 첨단 의술과 따뜻한 케어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재 대표는 "선생님과 자영업자가 동시에 힘낼 수 있는 협약이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